

VD SPECIAL

벤처캐피탈 활성화

VENTURE

벤처캐피탈 선진화로

벤처 활성화를 이루자

CAPITAL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투자기능을 발휘해 온 벤처캐피탈은 정부의 보완대책을 기점으로 더욱 선진화된 모습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필요성과 역할, 향후 전망을 통해 벤처캐피탈을 재발견해 보자.

글 _ 김형수(벤처캐피탈협회 이사)

벤처캐피털, 희망적인 변화 양상

최근 들어 벤처캐피털 업계가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말에 접수를 끝낸 중소기업청 출자 조합에는 무려 38개의 벤처투자조합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보다 정부출자 비율이 약 10%가 줄어 당초 조합 결성이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뒤엎고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벤처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지난 6월 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보완대책까지 발표하자 벤처캐피털 업계는 벤처산업의 침체가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재도약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희망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벤처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태펀드와 국민연금 그리고 KIF 벤처펀드의 결성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는 분명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정부의 '벤처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벤처산업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수년간 혹독한 시련기를 보냈던 코스닥시장이 점차로 회복되어 이제 지수 500을 바라보고 있으며 훌륭한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벤처기업도 다수 생겨났다. 무려 1000% 이상의 투자성과를 거둔 벤처캐피털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벤처산업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벤처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의 정책방향이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최근의 정책은 양질의 벤처투자 재원 조달, 벤처캐피털의 경쟁력 강화, 코스닥시장 및 M&A 시장의 활성화 등 인프라 확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벤처마킹을 통한 벤처캐피털의 선진화 시도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로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그리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코스닥시장을 꼽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털은 지금까지 하나의 산업이라기보다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자리매김되고 그에 따라 역할도 제한되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처럼 벤처캐피털과 관련된 독립된 법을 가지지 못하고 '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속에서 창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이 제한돼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6월 8일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을 통해 벤처캐피털과 관련한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발표됐다. 하나는 벤처캐피털의 경영참여제한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고, 또 하나는 유한회사형 투자조합의 결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정부의 벤처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미국의 벤처캐피털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전문가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식 벤처캐피털 제도에 한걸음 접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투자 활성화로 성공신화를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은 아직도 배우고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오랜 벤처산업의 역사를 갖고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 등 풍부한 양질의 자금공급이 원활하며 나스닥시장, 최고의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체계 등 훌륭한 인프라를 갖춘 미국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여전히 벤치마킹의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 벤처캐피털도 NHN, 엠택비전, 웹젠, SNU프리전시, 코아로직 등 수많은 훌륭한 기업과 함께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기업이 성공의 신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벤처캐피털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의 개선으로 벤처투자환경이 개선된 것은 분명히 환영할 일이지만 한편으로 벤처캐피털은 벤처산업의 활성화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